제34회 2017년 환경주일

(설교본문 겔 47:1~12)

치유와 회복, 창조세계에 주신 은총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겔 47:9)

참여교단 · 단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 · 윤리위원회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사회봉사부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 사회농어촌환경부 / 한국기독교장로회 생태공동체운동본부
한국구세군 / 대한성공회 / 기독교대한복음교회 /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서대문)
기독교한국루터회 /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문 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윤리위원회
02)765-1136 www.kncc.or.kr

기독교환경운동연대·(사)한국교회환경연구소
02)711-8905 www.greenchrist.org

치유와 회복, 창조세계에 주신 은총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겔 47:9)

CONTENTS

발간사 – 치유와 회복, 창조세계에 주신 은총 03

2017년 환경주일 공동기도문 04

2017년 환경주일 공동설교문 05

2017년 피조물의 신음소리 12

관련 도서 및 영상 16

치유와 회복, 창조세계에 주신 은총

올해도 어김없이 환경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환경주일을 기억하고 각자의 예배처소에서 한 마음으로 환경주일 예배를 드리는 전국의 교회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7년은 무분별한 개발과 성장의 분위기 속에서 환경과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환경주일을 제정하여 함께 예배드린지 서른 네 번째 되는 해입니다. 올해 환경주일 주제는 "치유와 회복, 창조세계에 주신 은총"으로 정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욕심과 무지함으로 인해 날로 망가져 가는 창조세계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향한 감사, 그리고 이와 같은 치유와 회복의 귀한 여정에 기꺼이 동참하고자 하는 우리의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 창조세계는 유전자조작식품(GMO)의 무분별한 확산, 생명의 강을 죽음의 강으로 바꾸어 놓은 4대 강 사업, 앞뒤 가리지 않는 국토 난개발,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핵발전소 건설 등으로 인해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세계를 더불어 살아야 할 이웃으로서가 아니라 정복해야 할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33년간 창조세계의 보전을 위해 힘을 다해 기도해왔지만 여전히 파괴와 정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멈춰야 합니다. 개발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생명의 터전을 파괴하는 무시무시한 죽임의 역사를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교회가 먼저 사명감을 가지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직면해 있는 환경 이슈에 관한 작은 자료집을 만들었습니다.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는 환경 파괴 행위에 관해 교인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 새롭게 결단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으로부터 흘러내린 생명의 물이 닿은 곳곳마다 모든 것이 되살아나듯이 한국교회가 함께 드리는 환경주일 예배를 통해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이 생기를 되찾고 아름답게 공존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치유와 회복, 창조세계에 주신 은총"이라는 주제로 드려지는 2017년 환경주일 예배가 생명살림의 일꾼으로 부름 받은 소명을 다시금 확인하고 창조질서 보전을 위해 헌신하는 귀한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여러분 위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장(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 · 윤리위원회)

2017년 환경주일 공동기도문

"참 좋다."라고 경탄하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혼돈과 어둠 가운데 빛을 발하신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도 비추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밝은 빛으로 하루를 기쁘게 맞이하지 못하고 뿌연 먼지와 잿빛 하늘을 바라보며 한숨으로 시작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조작된 유전자 조작으로 양적으로만 풍성한 먹거리는 햇살과 정직한 농부의 땀으로 키워낸 건강한 먹거리의 수고를 헛되이 하게합니다. 또한 유전자 조작 원료 성분을 교묘하게 속여 판매 되어지는 식품들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쉼을 위한 어둠을 거부하고 밤을 낮처럼 밝히며 살고, 여름에 과도한 난방기 사용으로 긴팔을 입으며, 겨울에는 땀이 잘 정도로 실내 온도를 올리느라 우리가 지구를 점점 뜨겁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 합니다. 주님, 편리와 풍요를 좇아 창조세계를 파헤쳐온 우리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탐욕과 교만이 경탄의 세상을 신음하는 세상으로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흐르는 강을 막아 호수를 만들었습니다. 호수가 된 강은 더 이상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죽이는 일에 더 이상 방관자로 있지 않게 하소서.

새롭게 하시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위협받는 죽임의 자리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돌이켜 생명의 자리를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주께서 기뻐하셨던 창조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깨달음과 결단, 실천의 삶이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되게 하옵소서. 따사로운 햇살과 바람으로부터 살아갈 에너지를 얻게 하시고, 만나의 넉넉함을 나누어,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감사한 먹거리가 되게 하옵소서. 순리에 따라 강물이 다시 흘러 생명의 강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창조세계의 지킴이로 부름 받은 소명을 잊지 않고 올바르게 실천하므로 "참 좋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모든 순간의 고백이 녹색교회, 녹색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감사의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의 은총으로 창조세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굽어진 세상을 정의와 사랑으로 곧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치유와 회복, 창조세계에 주신 은총

(에스겔서 47:1–12)

에스겔 47:1–12

1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2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3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 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4 다시 천 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 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5 다시 천 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6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 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7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8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 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9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10 또 이 강 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 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11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12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오늘 우리는 생태환경의 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명이 살아가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물과 공기의 오염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고,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위한 먹을거리들이 정체불명의 유전자조작식품과 뒤섞여 있습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에서 일어났던 사고에서처럼 한 지역을 죽음의 땅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핵발전소가 계속해서 건설되고 있으며, 지구 온난화라는 기후변화는 지구의 생태계에 속한 모든 생명체들의 대규모 멸종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생태환경의 위기는 전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인간이 산업 활동을 시작하면서 배출되기 시작한 이산화탄소가 기후변화를 일으켰고, 더욱 편리한 삶을 위한 전기의 사용이 핵발전소를 건설하게 했고, 적은 노력으로 많은 소출을 얻기 위한 욕심으로 유전자를 조작했으며, 강과 산과 들을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다는 탐욕이 산과 강과 들에 깃들어 살아가는 생명들을 죽음으로 치닫게 했다는 것이 우리들을 불편하게 하는 진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는 낯선 땅 바벨론의 포로로 살았던 선지자 에스겔이 기록한 에스겔서의 말씀을 만납니다. 성서학자들은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났던 에스겔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을 때 함께 포로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에스겔은 그의 포로 생활이 5년째로 접어들던 해에 유브라데강의 지류인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뒤부터 22년 동안 함께 포로로 잡혀온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간, 예레미야와 동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에스겔과 함께 포로생활을 했던 유대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멸망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후 이들은 포로생활의 고통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상실의 슬픔까지 떠안아야만 했습니다. 지금 포로생활만으로도 괴롭고 힘이 드는데 언젠가 돌아갈 그리운 고향마저 파괴되었다니, 그야말로 그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 우왕좌왕하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상실의 슬픔과 고통을 겪게 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인 걸까? 고향 땅 예루살렘 성전이 사라졌는데 이제 우리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 그들은 낯선 바벨론 땅에서 이러한 신앙의 물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바로 이 물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서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에스겔서의 유대 포로들이 처한 절박한 상황은 생태환경의 위기의 상황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도 에스겔서의 유대 포로들처럼 도무지 희망이 없는, 길이 꽉 막혀버린 절망의 상황에 서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태환경의 위기의 상황을 겪게 하시는 걸까?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인 걸까?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아름다움이 사라져 가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우리에게 닥친 생태환경의 위기가 너무나 엄청난 것이기에 우리도 역시 우왕좌왕하며 창조세계의 회복으로 나아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에스겔서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고통과 슬픔 속에서 살아가야했던 유대 포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도 오늘 우리가 처한 생태환경의 위기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고 지키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엿새에 걸쳐 세계를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만드시고 이 모든 세상을 돌보고 지키는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지금 우리들은 창조세계를 지키고 돌보는 거룩한 사명을 잊은 지 오래입니다. 거룩한 사명은커녕 우리는 창조세계 안의 모든 생명들을 위협하는 존재, 유대교 랍비 케이건이 이야기한 "여럿이 함께 타고 항해하는 배 위에서 자기 자리 밑에 구멍을 뚫는, 있을 수 없는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가장 큰 골칫덩어리입니다.

때문에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탐욕으로 창조 세계를 생명을 잃고 죽어가게 하면서도 우리의 사명을 잊은 채 나 몰라라 살아가고 있음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 정교회 사제인 이냐시오 4세는 바다가 오염되고, 하늘이 찢어지고, 숲이 사막이 되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인간이 마음과 가슴으로 안타까워하며 회개하지 않는다면, 창조세계를 보호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일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창조세계가 황폐해진 것이 사명을 잊었던 우리의 잘못이었음을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참회하는 심정으로 죽어가는 창조세계를 되살리려는 노력에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합니다.

특이하게도 선지자 에스겔은 때로는 환상이라는 이야기의 양식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특이한 행동으로, 때로는 애가, 노래, 비유, 잠언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유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당시 포로생활에 지친 많은 유대 사람들이 바벨론 왕에게 대항하여 고향으로 돌아갈 방법을 모색하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에 마음이 뺏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에스겔의 특이한 행동에 놀란 유대 사람들이 에스겔에게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먼저 묻게 됩니다.

에스겔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운을 띄우며, 하나님의 은총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나온 유대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과 예배드리는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며,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으로서 어느 곳에서든지 만날 수 있는 분이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이를 위해 사람들의 마음과 영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과 공동체의 삶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결국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공동체가 힘을 얻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회복하도록 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이러한 노력 때문에 바벨론의 유대 사람들은 포로 생활의 고통과 예루살렘 상실의 슬픔을 극복해 나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들은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생활을 끝내고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에스겔서 47장은 에스겔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에스겔 선지자가 바라본 성전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성전을 세우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새로운 성전으로 들어가시자 성전의 문지방에서 솟아나온 물이 성전을 돌아 흘러가며 물이 불어나더니 큰 강이 되어 바다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전의 문지방에서 발원한 물이 지나가는 곳마다 일어나게 될 놀라운 일들을 말씀해주십니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게 되어 어디에서나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고, 강가에는 온갖 종류의 과일나무가 자라나 열매를 사람들이 먹고 잎은 약재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원대한 계획,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창조세계 모두의 치유와 회복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단지 유대 사람들을 위한 성전을 다시 세우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을 통해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창조세계에 아낌없이 베풀어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창조세계는 상실을 넘어 희망을 보고, 결핍을 벗고 풍요함을 입으며,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창조세계 모두를 생명으로 가득한 공동체로 만드시려는 계획을 이루시려한다는 것이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 드러내신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향한 치유와 회복의 말씀이야말로 오늘 생태환경의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구원의 희망을 바라보게끔 하는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물과 공기를 맑고 깨끗하게 회복시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먹을거리를 안전한 것으로 만들어 우리를 치유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이 땅에서 핵의 두려움을 없애실 것이고, 기후변화로 인한 생명들의 멸종이 일어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산에는 다시 산양들이 신나게 뛰어놀고, 우리의 강에는 물고기들이 힘차게 헤엄을 칠 것이고, 우리의 들에는 새들의 기쁜 울음소리가 넘쳐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입은 창조세계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러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유대 사람들에게 마음과 영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과 공동체의 삶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과 영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어리석음과 탐욕을 내려놓고 창조 세계의 친구이자 섬김이로의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 화려한 집, 더 큰 자동차, 더 기름진 음식, 더 비싼 옷에 대한 우리의 욕심을 접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어리석고 지나친 소비생활이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병들게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살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에너지를 덜 소비하는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고, 맑은 물을 지키기 위해 무분별한 개발을 막아내고,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 정책을 만들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과 영이 이와 같이 새로워지지 못한다면 창조세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치유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공동체의 삶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의 지배자이자 정복자라는 착각에서 벗어나 창조 세계의 모든 생명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속한 신앙공동체인 교회가 창조세계의 생명들의 친구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교회가 새들의 친구가 되어 나무를 심어 숲을 지키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멸종의 위기에 처한 동물의 친구가 되어 산과 들을 돌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물고기의 친구가 되어 개발로부터 강을 지키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우리의 공동체를 새로운 생명의 공동체로 바꾸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물을 깨끗하게 하고, 홍수와 가뭄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강의 모래를 파내고 16개의 보를 쌓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한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4대강은 연중 내내 녹조가 번지고, 더러운 웅덩이에서 사는 큰빗이끼벌레와 시궁창에서 사는 실지렁이가 창궐하며, 물고기들이 수시로 떼죽음을 당하는 죽음의 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난 배경에는 강을 도구삼아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한 정치인, 학자, 언론, 사업가들의 공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는 4대강 앞에서 이들의 죄악을 막아내지 못한 우리 교회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4대강을 탐욕의 도구로 삼았던 이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 공의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4대강의 치유와 회복, 4대강의 재자연화를 위해 교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이를 통해 창조세계에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삼아야 합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댐으로 막힌 강을 살리기 위해 댐을 허물어 강의 재자연화를 시킨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 구마모토현 구마가와 지역에서는 40년 동안 강을 막은 아세라댐을 허물자 오히려 홍수가 줄고, 모래가 쌓여 물이 맑아지고, 사라졌던 물고기와 새들이 다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네덜란드, 영국, 독일, 미국에서도 이와 같이 댐을 허물어 강이 창조된 모습으로 되돌리는 강의 재자연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방사능으로 위험천만한 핵발전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햇빛과 바람과 물에서 얻는 재생에너지의 사용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농약을 사용하는 유전자조작식품의 문제가 드러나고 흙과 물과 농부 모두를 살리는 안전한 유기농식품이 세계 시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파리 기후협약과 같은 기후변화의 위협으로부터 모든 생명들을 지켜내려는 국제사회의 협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 언제든지 창조세계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증거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정부가 속히 4대강의 재자연화에 앞장설 것을, 핵발전을 중단할 것을,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생태환경을 우선한 국토관리계획을 세울 것을 촉구해야 하며 그 일에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참회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망쳐버렸는지를, 이 창조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을 잔혹하게 대했는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진정으로 참회한다면, 우리의 삶은 당연히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만들고 우리의 공동체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이야 말로 우리의 치유와 회복의 자리, 우리의 새로운 미래인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를 두고 지구 과학자이자 신학자였던 토마스 베리는 "인간과 창조세계는 하나의 성스러운 공동체를 이루어 미래로 나아갈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새로운 삶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빚어지는 치유와 회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은 창조 세계의 생명의 공동체를 만드시려는 원대한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날의 어리석음과 탐욕에서 벗어나, 이 생명의 공동체에 초대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구원의 사건의 시작일 것입니다.

2017년 피조물의 신음소리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인간의 풍족한 삶의 욕구로 인해 피폐해 지고, 죽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와 우리는 우리의 이웃인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답에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치유와 회복을 이루는 사랑의 실천을 해야 할 때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한국교회인 우리가 4대강을 복원하여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재자연화를 이루는 데 동참하게 하소서.

강은 흘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신 자연의 법칙입니다. 흐르지 않는 강은 죽은 물이 됩니다. 4대강 사업으로 한반도의 아름답고 생명력 넘치던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은 죽음을 품은 호수가 되었습니다. 22억을 들여 16개의 보와 5개의 댐으로 더 이상 흘러가지 못 하고 막혀 있습니다. 결국 수질은 악화 되었고, 물고기 산란처가 사라지고, 강바닥은 산소가 고갈되어 물고기가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녹조 발생으로 간질환을 유발하는 마이크로시스티스와 피부병, 리굴라 촌충 감염 사실이 드러나면서 어업으로 살아가는 어민들의 상황마저 어렵게 되었습니다.

수질악화, 새로운 홍수피해 증가, 주변 농경지 침수피해 양산, 물고기 떼죽음 사태, 역행침식으로 인한 교량붕괴, 제방 붕괴와 급기야 보 본체의 붕괴 위험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강을 다시 흐르게 하면 됩니다. '4대강 재자연화의

길'이 바로 그 것입니다. 수문을 상시적으로 개방하거나, 보를 해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4대강 재자연화의 근본적인 해법이고, 가장 손쉽고도 가장 경제적인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독일, 영국 등의 강 재자연화 사례는 복원의 중요한 의미와 가능성을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EU에서는 '물 관리 지침'을 만들어 강을 보전하는 것보다 한 차원 더 나아가 강을 깨끗이 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독일 이자르강 복원 전과 복원 후 모습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해야하는 한국교회가 에너지 사용 절감과 자연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재생에너지 사용에 앞장서, 창조세계의 생명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 에너지 정의를 이루게 하소서.

이 지구에 존재 하는 모든 것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되어진 이래 에너지의 생성과 상호작용은 자연스럽게 진행되어지도록 규칙이 존재합니다. 태양에너지는 지구의 기후에 힘을 주고 생명을 지탱시켜주는 태양에서 오는 열과 빛 형태의 복사에너지입니다. 광합성은 지구상의 생물이 빛을 이용하여 화합물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하는 화학작용입니다. 박테리아의 번식을 비롯하여 콩이 싹을 틔우고 나무가 자라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은 에너지에 직접적으로 의존해서 일어납니다.

또한 태양 복사 에너지는 지구의 99.9% 재생 가능 에너지를 차지합니다. 태양열 기술은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물과 공간을 따뜻하게 하고 또 공간을 차갑게 하거나 열을 처리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태양에너지의 흐름과 저장은 수많은 전자 제품을 사용하는 이 시대의 에너지 요구와 견주어 볼 때 무한합니다. 태양에너지는 고갈되지 않습니다. 태양에너지를 포함한 재생에너지(바이오, 수력, 지열, 풍력 등)는 온실 가스로 인한 대기 오염 때문에 발생하는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온실 가스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CO_2를 발생 시키는 화석연료를 대신한 에너지원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해와 바람과 공기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어마 어마한 가치가 있는 에너지원입니다. 유해하지 않습니다. 경제논리에 비추어도 효율적입니다.

더 나아가 대체에너지인 재생에너지를 발전시키는 것과 더불어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할 것은 에너지 절약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의 생산량은 과도한 에너지 사용을 백퍼센트 충당할 만큼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과도한 에너지 사용은 노후 되고 위험한 핵발전소가 우리나라에는 24개가 가동해야 한다고 거짓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이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화석연료와 핵에너지라는 이기적인 에너지 사용이 지구 온난화라는 기후변화, 미세먼지 발생과 같은 대기 오염, 지역 간의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 재생 에너지

2015년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 협약당사국 총회에서의 새로운 기후체제의 틀을 마련했습니다. 기후변화의 주범인 CO2 감축에 대한 협정은 지구의 어느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2012년 IPCC자료에 의하면 CO2 배출로는 OECD 4위이고, 1인당 CO2 배출 5위입니다. 온실가스 생산국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온실가스 감축에 큰 책임이 있습니다. 에너지 과용으로 인해 지구의 수많은 나라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너지의 과용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소비주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무분별한 에너지 사용은 이제 창조세계인 지구를 회복 불가능한 지경으로 몰아갔고, 머지않아 생명 대멸종을 맞을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식용 GMO 수입국 1위 대한민국. 안전한 먹거리가 가장 위협받고 있는 대한민국. 생명의 위협의 한 가운데 서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한국교회가 생명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한국농업생명공학안정성센터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의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농촌진흥청 GM 작물 시험재배 승인 현황을 보면, 정부산하 5개 기관에서 8품종, 공공/민간연구소 21개 기관에서 19개 품목 등, 전체 26개 기관에서 23개 품목에 대해 GMO 시험재배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2020년까지 80종의 GM 작물개발 및 국내용 육종 소재 5종 확보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해충 및 제초제 저항성 GMO가 갖고 있는 저항성 유전자는 쉽게 생태계 속으로 전이되고, 해충저항성 GMO는 이로운 곤충도 죽입니다. GMO가 재배 되면서 유전자 오염으로 생물 다양성이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GMO의 안전성 문제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무해하지 않다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고, GMO 완전 표시제도 시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GMO 식품은 우리의 가정 밥상 뿐 아니라 학교 급식에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위험합니다. 검증되지 못한 식품 안전의 문제는 사회 전반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다국적 기업과 선진국의 농업 및 식량 독점의 가속화로 인해 사회경제가 불평등을 초래하는 GMO에 대해서 철저하게 안전한지 검증해야 합니다. 선한 뜻으로 포장한 악의와 욕심을 찾아내어야 합니다. GM 개발이라는 위장된 악의와 욕심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방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온전히 나누는 것입니다.

2010~2012 GMO 수입업체

자료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수입업체	품목	수입내역		
		건수	중량	금액
씨제이제일제당(주)	대두	139	1,665,807	865,766
	유채	1	10.826	7,783
(주)사조해표	대두	109	929,605	484,233
에이에스씨푸드(주)	대두	1	1	1
(유)콘프로덕츠코리아	옥수수	66	788,568	229,045
(주)삼양제넥스	옥수수	67	901,897	264,164
대상(주)	옥수수	60	1,360,476	441,276
(주)대성물산	유채	34	378	257
(주)엠에스무역	유채	1	15	11

또한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 할 수 있는 근본인 토종 종자를 지키고, 로컬푸드 운동을 통해 사회적 거리를 좁힘으로써 식품 안전과 가격 안정을 보장받으며, 얼굴 있는 생산자와 얼굴 있는 소비자가 서로 관계 맺기를 통해 밥상 안전을 지키고 지속 가능한 생산-소비의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 것을 권합니다. 물론 GMO 완전 표시제도 시행되어야 합니다.

▲ 전북완주농촌진흥청 GM 벼 재배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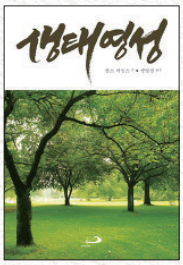
관련 도서 및 영상

도 서

『성서와 환경』

(호렐 지음, 이영미 옮김, 한신대학교출판부)

『성서와 환경』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공해, 자원의 고갈, 원전의 붕괴 등의 생태위기를 맞은 현대사회를 위해 성서적 해답을 제시한 짧고 유익한 생태성서신학 입문서이다. 저자는 생태주제와 관련된 개별 본문 분석에서 그치지 않고 종합적으로 성서 전체를 생태신학적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다. 나아가 이 책은 성서본문해석을 넘어서서 생태성서신학의 정립을 시도하고, 이를 위한 해석학적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성을 지닌다.



『생태영성』

(찰스커밍스 지음, 맹영선 옮김, 성바오로)

『생태영성』은 생태문제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하는 생태적 통찰을 핵심적으로 종합정리하여, '생태문제'에 대한 전체적이면서도 균형적인 통찰을 보여주는 입문서이다. 이 책은 근대적 사고방식과 과학과 기계기술의 문제점, 성경에 나오는 생태적 가르침, 교도권의 가르침, 다른 종교의 가르침,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생태운동 현황 등을 폭 넓게 다루고 있다.

영 상

4대강 사업 홍수 및 재해 안전성 진단 국제 심포지엄

(2011년 8월 18일, https://www.youtube.com/watch?v=PD3MZMtejNc)

독일 칼스루에 대학의 교수로 재직중인 한스 베른하르트 교수는 4대강 국민소송단의 초청으로 4대강 사업 현장을 답사했다. 그는 "유럽에서 이미 실패한 사업을 왜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라며 4대강 사업을 비판했다. 이 심포지엄에 참가해 4대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진단하고, 왜 독일에서 또, 유럽에서 하천사업을 하지 않는지와 독일의 이자르강 복원 사업을 통해 소상하게 밝혔다.

GMO 구멍뚫린 안전망

(뉴스타파 목격자들,
2016년 8월 26일, https://www.youtube.com/watch?v=mZWi23ebsvQ)

GMO 시험재배를 추적하는 농민들. GMO 연구학자의 양심선언. 일본에서 밝혀진 GMO 부실심사. 우리는 GMO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하고 있는가?

기후 변화 파리 협정 발효 기념 다큐 : 내일(DEMAIN)

(시릴 디옹/멜라니 로랄 감독, 프랑스, 다큐멘터리, 2016년)

지구 온난화를 인한 환경변화의 우려, 과학자 21명의 네이처 발표를 보고, 프랑스의 영화제작자, 시민운동가들이 모여 만든 영화.
기후면화 파리협정 발효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실행을 위해 기획 됐으며, 전 세계 10여개 국가를 다니며 지구와 인류 문제 해결을 위해 실천하는 사람들을 소개.
영화 내일은 5개의 챕터(1. 농업 2. 에너지 3. 경제 4. 민주주의 5. 교육)로 이루어져있다.